

Multilingual Electronic Newsletter

多言語メールマガジン

かごしま南の風便り

Kagoshima Southern Wind Tidings



VOL.190

## 1 국제교류원의 칼럼(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토우 레이카)

- 니하오 ! 안녕하세요 !

## 2 지사 관련 새 소식

- 주일 요르단 대사가 방문하였습니다. (6월 12일)
- 주일 인도 대사가 방문하였습니다. (6월 19일)

## 3 가고시마 소식

-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도에 컨테이너 단위로 소주(다이야메)의 수출을 시작하였습니다. (6월 1일)

## 4 가고시마 관광 정보

- 카지키 거미싸움 대회(6월 16일)
- 제 91 회 야마가와 미나토 축제(6월 1일~2일)

---

## 국제교류원의 칼럼

---

### ● 니하오! 안녕하세요!●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토우 레이카(중국출신)—

저는 올해 4월부터 가고시마현청 국제교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제교류원 토우 레이카라고 합니다. 제 출신지는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로, 중국에서는 난징농업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학으로 고베와 교토에서 거주했던 적이 있지만 가고시마는 처음입니다. JET 프로그램에 신청했을 때부터 가고시마의 역사적인 유적이나 명물, 특산품등을 조사하였고 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하루라도 빨리 가고시마에 부임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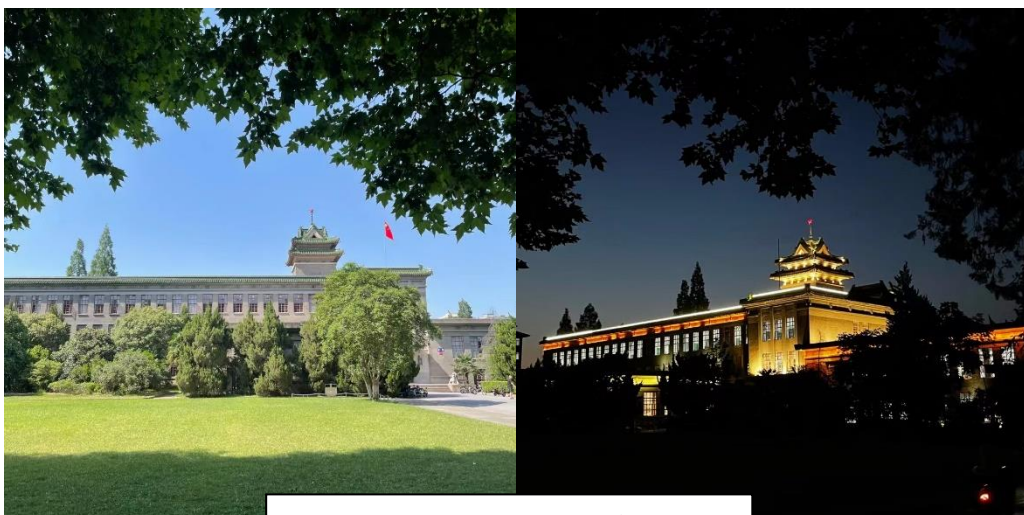
가고시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야자나무 가로수와 배산임수 지형인 가고시마의 남국 풍경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부임 후 출장으로 이부스키에 있는 JR 일본 최남단 니시오야마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의 같은 위도에 있는 상하이와 장쑤성이 바다 바로 건너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가고시마를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고시마의 바다나 화산 등 웅장한 자연을 보는 것과 동시에 지진이나 화산의 분화, 폭우를 경험하면서 인간은 우주의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동시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이미 150년도 전에 바다를 넘어 소통한 가고시마의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캐시리스 문화가 발달한 중국과는 달리 현청에서는 점심을 주문할 때 현금으로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잔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고시

마에 오고나서 생긴 습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금을 지불하면서 돈을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업무에서는 주로 일본어를 중국어로 번역하거나 통역, 그리고 문화 강좌나 국제 교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엄격한 규칙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아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규칙에 따라 일하는 것에도 익숙해져 이제는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일이 순조롭게 되었을 때가 하루 중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가고시마에서 지낸지 눈 깜짝할 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들면 고향”이라는 속담처럼 친절하신 여러분 덕분에 생활도 일에도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특별하지는 않지만 평범한 나날들도 이제는 즐기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중국의 근무지인 난징농업대학의 교정



중국 상하이와 거의 같은  
위도인 니시오오야마역



이부스키시의 플라워파크 가고시마

---

## 지사관련 소식

---

### ●주일 요르단 대사가 방문하였습니다. (6월 12일)●

주일 요르단 대사가 가고시마에 방문하였습니다. 대사는 내년 요르단의 부인과 의사가 사가라 병원(가고시마시)에서 연수를 받는 것과 일본과 요르단의 외교관계 수립 70 주년을 계기로 앞으로 양국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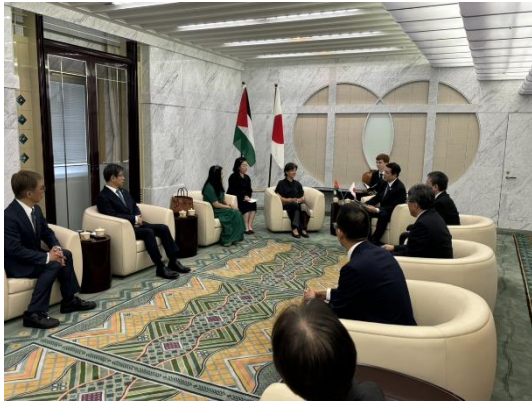
시오타 지사는 가고시마의 매력으로 세계자연유산의 풍부한 자연과 가고시마 와규, 차 등 다채로운 식문화를 소개하며 앞으로 상호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 주일 요르단 대사 일행과 단체 사진



● 리나 앤너브 주일 요르단 대사와



● 회담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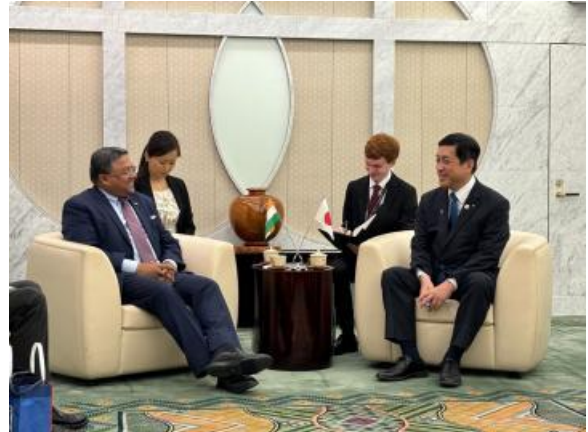
## ● 주일 인도 대사가 방문하였습니다. (6월 19일) ●

인도의 시비 조지 주일 인도대사가 가고시마현에 방문하였습니다. 조지 대사는 인구 세계 1위와 경제 성장률 8 퍼센트를 자랑하는 인도는 성장과 변혁의 한가운데에서 있으며 경제, 인재 분야에서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인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시오타 지사는 이번 대사의 방문이 인도와 가고시마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 시비 조지 주일 인도 대사와



● 회담의 모습

## 가고시마 새소식

### ● 국내에서 처음으로 컨테이너 단위로 소주(다이야메)의 수출을 시작하였습니다. (6월 1일)●

하마다 주조(가고시마현 이치키쿠시키노시)는 향이 첨가된 소주 「다이야메」 등 약 1만 300병(1,716박스)를 인도에 출하하였습니다. 인도에 컨테이너 단위로 소주를 수출하는 것은 국내 최초입니다.

## 가고시마 제철 관광 정보

### ●카지키 거미싸움 대회 (6월 16일) ●

40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카지키 거미싸움 대회」가 6월 16일 일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대회는 「우량 거미부」, 「싸움부」, 「오쇼센(王将戦)부」 3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취재를 위해 방문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대회로 매년 200 명 가까운 참가자들이 참가합니다.



「사진 협력:공익재단법인 가고시마현 관광 연맹」,

## ● 제 91 회 야마가와 미나토 축제 (6 월 1 일 ~ 2 일) ●

전국 유수의 높은 어획량을 자랑하는 야마가와 항에서 항해의 안전과 만선을 기원하는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첫 날인 6 월 1 일 토요일에는 불꽃놀이가 야마가와 항의 밤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이틀째에는 선단의 퍼레이드와 가두 행진, 연극대회, 활어 잡기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진 협력:가고시마현 난사츠 지역  
진흥국」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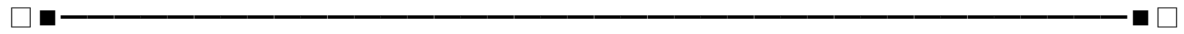


편집후기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여러분, 2 달에 걸쳐 보내드린 올해 부임한 두 명의 국제교류원, 김주희 교류원과 토우 레이카교류원의 칼럼은 어떠셨나요? 두 교류원 모두 일본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여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막 부임한 이 곳에서 업무와 공부에 힘쓰는 모습에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나날입니다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체력 관리에도 유의하시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이벤트들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 1.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 2. 가고시마 생활의 지혜

가고시마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사쓰마아게를 맛있게 먹는 법, 화산재 대처법)

이 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mailto:cir1@pref.kagoshima.lg.jp)

중국어 : [cir2@pref.kagoshima.lg.jp](mailto:cir2@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mailto: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mailto:minami@pref.kagoshima.lg.jp)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